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식사의 질을 나타내는 MAR은 0.87로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칼슘섭취량의 경우 NAR은 0.65로서 가장 취약한 섭취율을 보였다. 대상자들의 평균 총항산화능은 1.10 ± 0.09 mmol/L이었으며, 혈중 총항산화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Uric acid의 평균 함량은 4.21 ± 0.97 mg/dl이었다. 총항산화능과 관련하여 혈중 Estradiol, GOT, GPT, Uric acid,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s 함량과 신체계측 지표 중 WHR, BMI, 복부둘레, 내장지방면적과 유의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영양소 섭취상태와의 관련성은 총항산화능에서는 유의적인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Uric acid와의 관련하여서는 엽산의 섭취량과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폐경 여부에 따라서 총항산화능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2-13】

혈액투석 환자의 영양상태 및 영양지식에 관한 연구

이나영† · 장유경 · 박한철[1)]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신장내과[1)]

최근 보고에 의하면 국내에서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신장 대체요법의 발전으로 인한 수명연장, 신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타 질환으로부터의 생존율 증가에 따라 만성 신장질환의 발병률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투석 환자들의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투석치료법의 발달에 따른 투석환자들의 수명도 연장되고 있어 투석환자의 재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반해 만성 신부전 환자들의 영양상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혈액투석 환자에 있어서 영양상태와 환자들의 영양지식정도를 측정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서울 소재에 위치한 신장 전문내과에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으러 내원한 환자 24명(남자 : 20명, 여자 : 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영양소 섭취량은 24시간 회상법으로 3일간의 평균치를 1일 영양소 섭취량으로 산출하고 영양지식을 설문하였다. 혈액투석환자들의 영양소 섭취량은 영양권장량에 비해 에너지 66.99%, 단백질 92.80%, 비타민 A 67.42%, 비타민 E 94.07%, 비타민 C 83.24%, 비타민 B_1 77.44%, 비타민 B_2 74.49%, niacin 87.05%, 비타민 B_6 111.61%, folate 62.16%, Ca 54.60% 수준으로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 비타민 A, 비타민 B_2, folate , Ca은 영양권장량의 75%에도 못 미치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의 영양지식 총 점수는 20점 만점에 13.20이였으며 영양지식 총 점수를 전체 평균값과 분포도를 고려하여 17점 이상을 '고', 10~16점을 '중', 9점 이하를 '저'로 분류한 결과 영양지식이 낮은 사람이 8.3%였으며, 영양지식이 중간인 사람은 79.2%, 영양지식이 높은 사람은 12.5%로 혈액투석환자의 90%정도가 중간이상의 영양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영양지식이 높은 편이었다. 대상자들의 영양소 섭취실태가 불량한 것에 비해 영양지식 정도는 다소 높은 것으로 관찰되어 연구 대상자들의 영양지식이 식사 섭취량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단순한 영양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환자의 식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환자 개인에 맞는 세심한 영양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P2-14】

다양한 종류의 특수영양식품을 적용한 상업성 체중관리 프로그램과 1300 kcal의 조절식단을 적용한 체중관리프로그램의 복부 지방율의 변화량과 비만도 및 건강위험 요인에 미치는 영향

구선영 · 김상연[1)] · 박민정[2)] · 김인혜[2)] · 장유경[2)]†

서울아산병원, 한양여자대학 식품영양과[1)],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2)]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체중조절이 사회적인 문제로 다루어질 만큼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급속한 증가와 아름다워지려는 여성들의 요구에 의해 무분별한 다이어트가 시행되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와 관련된 상업성 다이어트 업체들도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특정 다이어트제품의 비만도(body mass index; BMI (kg/m^2)의 감소에 따른 효능평가에 관한 연구는 보고 되고 있으나 건강 위험인자의 개선에 대한 효과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여러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비만보다 지방의 부위별 분포가 심혈관 질환 및 비만의 다